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강현정*, 김윤정**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Hyun-Jung Kang(hj-cs@hanmail.net)*, Yun-Jeong Kim(twoyun2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 중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이 45.4%, 근로배제 78.7%, 주거배제 17.8%, 건강배제 43.8%, 교육배제 33.7%, 사회활동 배제 34.3%로 근로배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배제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배제는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배제의 경우, 노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할 경우, 생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주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기독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생존자녀수가 많을 경우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가구일 경우 건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아닌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기초적인 연구로 가치가 있다.

■ 중심어 : | 노년기 사회적 배제 | 사회적 배제 |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for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to understand the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was examined targeting 4,040 old people in more than 65 years old by using the second data for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in 2008 by Korea Labor Institute.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for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the old people were indicated to be 45.4% for economic exclusion, 78.7% for working exclusion, 17.8% for residing exclusion, 43.8% for health exclusion, 33.7% for educational exclusion, and 34.3% for social-activity exclusion. Second, the possibility to be excluded economically was indicated to be bigger in the older age, in a case of not residing in a city and in the more number in household members. The possibility to be excluded from working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a case that old person is woman, in the older age, in a case that old person's religion is christianity, in a case without spouse, in the more residing in a city, in a case that a household type is poor, in a case of dwelling in apartment, in the more number in household members.

The possibility to be excluded from residing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a case without spouse, in the more residing in a city, in a case that a household type is poor, in a case that a residing house type is general house, and in the less number in children. The possibility to be excluded from education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a case that old person is woman, in the older age, in a case that religion is not Christianity, in a case without spouse, in a case of not residing in a city, in a case that a household type is poor, in a case of the more children alive. The possibility to be excluded from health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a case that old person is woman, in the older age and in a case that a household type is poor. The possibility to be excluded from social activity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a case that old person is woman, in the older age, in a case that religion is not Christianity, in a case that a household type is poor, in a case of dwelling in apartment. This study has value as a basic research on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 keyword : |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 Social Exclusion |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

I. 서론

최근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단일 차원의 현상이 아닌 사회적·문화적·심리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복잡한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책 역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은 그들의 사회적·신체적 환경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고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41]에 따르면 노년기는 개인과 환경 그리고 노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경험과의 상호작용이[45] 중요하며, 노년기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노년기에 어떠한 생활양식을 갖고 생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관습과 규범, 자신의 생애 경험으로 결정[9]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 노인과 상호작용하는 주위 환경 및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30],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문제를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배제[1][3][14][52][54]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54], 사회적 관계, 사회적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제도의 참여 기회의 감소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48].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EU에서는 인간이 현대 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은[2][3][9][20]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 즉 개인이나 집단이 소비하는데 필요한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 혹은 그 영역에서의 권리의 박탈을 사회적 배제라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사회적 배제가 다차원적으로 정의되어져야 함에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년기 문제를 접근

함에 있어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배제 노인의 수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정책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SEU(2001)에서는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을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정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활발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경제, 소외감, 무위의 노년기 4중고의 문제를 고려하여 노년기 사회적 배제를 '경제, 근로, 주거, 건강, 교육, 사회활동에서의 제한'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고령화연구패널(KLoSA)데이터를 이용해서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 예측 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사회적 배제실태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노년기 사회적 배제 실태를 경제적 배제, 근로배제, 주거배제, 건강배제, 교육배제, 사회활동 배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년기 경제적 배제는 경제활동에서의 제한이다. 이는 빈곤율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빈곤은 경제적 수준이나 정도의 측정에서 소득과 소비, 부(wealth)로 측정이 가능하여 복지의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8]. 노년기 경제적 배제를 측정한 연구들이 [5][8][9][19] 소득과 관련되어 경제적 배제를 측정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통계[38]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아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수와 류연규(2003)는 노인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빈곤할 뿐 아니라, 세대 내 상대적 빈곤율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OECD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09’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노인의 45%가 빈곤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3.3%에 비하여 약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빈곤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31]. 이처럼 노인층은 경제적 배제가 심각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노년기 근로배제는 취업활동에서의 제한이다. 이는 고용률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2010년 고령층 인구 중 향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44.5%로 나타났으나,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30.1%로[38], 노인의 욕구에 비해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인의 수는 적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취업 희망자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측면에서 근로배제를 봤을 때, 약 14.4%의 노인이 근로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주거배제는 주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한이다. 주거문제가 사회적 배제의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득이 낮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적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고, 열악한 주거는 적절한 고용이나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9]. 자녀와 비동거 하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 주거지에 가능한 거주하고 싶다’는 노인들이 조사 노인의 90% 이상이었으며,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현재 주택의 개조를 가장 많이 원할 만큼 주거의 안정감과 친숙함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런데, 통계청(2009)에 의하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노인은 전체의 75%이며, 전세 12%, 보증금 있는 월세 6%, 보증금 없는 월세 및 사글세 2%, 무상 2% 등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전체의 25%가 안정되지 않은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또한 노년기의 주거는 생애 과정동안 축적된 결과로써 노년기에 안정되지 않은 주거는 건강,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9]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고려하였다.

노년기의 건강배제는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한이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과 노화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전반과 사회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Euro Health Net(2003)은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구조 및 노인, 장애인 등의 특정 인구집단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서 건강문제의 결과로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건강문제는[38]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게 원인이 된다. 노인의 건강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년기 교육배제는 교육기회의 제한이다. 광복이전 통계에 의하면 1944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86%가 취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9]. 이는 현재의 노인들이 사회적인 여건과 교육적인 여건상 공교육이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현대사회로 변화되면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교육열과 고학력의 젊은 세대 속에서의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화이론에 의하면, 현대화 과정에서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은 직장에서 밀려나게 하고 이는 다시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10]. 즉 교육에서의 배제는 근로의 배제와 경제적 배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년기 사회적 배제 하위 영역으로 노인의 교육 배제를 살펴봤다.

노년기 사회활동 배제는 사회활동 참여의 제한이다.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에 ‘참여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고[15], 성공적 노화를 위한 주요 3대 요소에도 포함되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건강한, 행복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주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6].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0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전체 27.1%이며, 남

자노인이 32.1%, 여자노인이 23.6%로 남자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더 높았다. 즉 65세 이상 노인들의 70% 이상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표 1. 노년기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자	영역	지표
배지연 외 (2006)	빈곤 및 중산층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212명	경제적 배제	·경제활동참여유무, 재정상태
		정치적 배제	·시민활동 참여 (정당 활동에 참여, 반사회 및 주민활동 참여, 여가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 교회 및 종교단체, 지난 5.13지방선거 투표 유무)
		사회적 배제	·사회적 관계(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고민 나눔, 중요정보공유, 경제적 도움) ·문화 활동(영화관람, 박물관과 미술관 견학, 콘서트와 오페라관람, 외식, 관광)
		기타 영역	·사회적 서비스(교통, 의료, 금융, 공공 시설 접근성) ·동네배제 ·노인차별의식
김안나 외 (2008)	노인조사자료와 복지패널 자료 이용	소득 배제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50%이하
		노동 시장 배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주거 배제	·화장실 사용형태 (단독주택 사용 여부)
		건강 배제	·주관적인 건강 상태
		사회활동 배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노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관계적 배제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백혜성 (2008)	종합사회복지관 60세 이상 이용자 833명(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통합배제연구단 자료)	사회적 배제-통합 변수 사용	·사회적 교류 ·생산 활동 ·정치적 관여 ·소비
김상호 (2003)	노인 2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이해리 (2005)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실무진, 남녀 노인 심층면접조사		
김태준 (2007)	탐색적 문헌연구 (경제적 배제, 정치적 배제, 사회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영역 분류)		
노병알 김은미 (2007)	탐색적 문헌연구 (소득영역, 의료영역, 고용 및 사회활동 참여영역, 주거영역, 교육영역, 서비스 영역분류)		
김태준 (2010)	부산소재 51개소 복지관 이용자 824명 대상 (경제적 배제, 정치적 배제, 사회관계배제, 문화적 배제 정도 구분)		
정운태 (2010)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재분석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배제간의 관계 재분석)		

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대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는 배지연외[19]와 백혜성[20], 김안나외[9], 그리고 정운태[33]와 김태준[12]의 연구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표 1]. 그런데 노년기 문제는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가족관련 요인, 물리적 특성 및 인적자원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적 수준의 자료수집으로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살펴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계층의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은수의 표본을 사용한 선행연구 배지연외[19]와 백혜성[20]과 김태준[12]의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한 김안나외[9]와 정운태[33]의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조합하여 사용하였고, 사회적 배제를 밝히고 있으나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9],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만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측요인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데이터를 이용해서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 기본조사의 대상자는 일반 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표집 및 조사를 실시했으며,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실사 결과 999개 조사구에서 6,171가구에서 45세 이상에 해당하는 10,254명의 가구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기반으로[43], 2008년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조사 8,688명의 대상자 중에서 1차로 65세 이상 노인을 선별하고, 가구총소득과 개인총

소득에 모두 응답한 총 4,04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2.1 사회적 배제

노년기 경제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OECD의 상대적 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50%이하의 개인총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경제적 배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50]. 이는 연구[9]에서 사용한 기준과 같다.

노년기 근로 배제는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으로 측정하여 이중에 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을 근로 배제집단을 분류하였다.

주거배제는 노인의 거주주택의 형태를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 중에 자가를 제외한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는 노인을 주거 배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건강배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리커트 형 5점 척도로 5점 '매우 나쁘다', 1점 '매우 좋다'이다. 중앙값인 3점을 기준으로 하여,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에 답한 노인을 건강배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교육배제는 EU의 '사회적 배제지표 2차적 지표'에서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Education) level 2*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을 교육 배제로 보고 있다[44].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경험했던 시대적인 특성상 교육 여건이 열악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는 노인을 교육 배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사회활동배제를 살펴보기 위해, '친목, 여가활동, 동창모임, 자원봉사활동, 정당 단체 활동'에 1개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을 사회적 참여배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2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개인적 특성은 노인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종교로 측정하였다.

2.3 노인의 물리적 특성

노인의 가구유형은 가구총소득의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그 이유는 평균소득은 최고 소득자의 소득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국제 연구에서 평균소득 대신 중위소득을 사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계측하고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OECD(1995)와 유경준과 김대일(2002)이 사용한 소득의 상대적 구분기준인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빈곤층, 중위소득 50-70% 가구를 중하층(modest income class), 중위소득 70-150% 가구를 중간층(middle income class), 중위소득 150% 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가구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구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를 사용하여 일관화 시킨 후 가구유형을 분류하였다. 노인소속가구의 총소득의 중위값은 707만원으로 빈곤층은 353만원 이하 가구, 중하층(modest income class)은 354-494만원, 중간층(middle income class)은 495-1060만원, 상류층(high income class)가구는 1061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세대유형으로 단독세대, 부부세대, 2세대, 3세대, 기타세대로 나누었으며, 주택유형은 일반주택과 아파트 거주로 구분하였다. 가구원수는 가구원의 총수로 측정하였다.

2.4 노인의 인적 자원

노인의 인적자원은 생존자녀 수, 손자녀 돌봄 여부로 측정하였다.

3. 연구 대상노인의 개인적 특성

남성노인은 1,684명으로 41.7%, 여성노인 2,356명으로 58.3%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상노인은 평균 73.56세이고, 65에서 69세가 1,299명 32.2%, 70세에서 74세가 1206명으로 29.9%, 75세 이상이 1,535명으로

*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Education)는 국제 표준 교육 분류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통계의 국제 비교를 위한 수단이며, OECD회원국에서 ISCED의 적용지침에 따라 교육체제를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level 0(취학전교육, 유치원교육), level 1(초등교육), level 2(전기중등교육), level 3(후기중등교육), level 4(중등 후 비고등교육), level 5A(1차 고등교육:A유형고등교육), level 5B(B유형고등교육), level 6(전문연구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음.

38.0%의 분포를 나타냈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2,805명 69.4%,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1,235명 30.6%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2,625명으로 65.0%,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1,415명으로 35.0%로 나타났다.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1,111명으로 27.5%, 불교가 920명으로 22.8%, 기타 및 무교가 2,009명으로 49.7%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대상노인의 개인적 특성 (N=4,040)

특 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성 별	남	1684	41.7	-
	여	2356	58.3	
연 령	65-69세	1299	32.2	73.56 (6.499)
	70-74세	1206	29.9	
	75세 이상	1535	38.0	
거주 지역	도 시	2805	69.4	-
	농 어 촌	1235	30.6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2625	65.0	-
	무배우자	1415	35.0	
종 교	기 독 교	1111	27.5	-
	불 교	920	22.8	
	기타 및 무교	2009	49.7	

4. 분석방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경제적 배제, 근로배제, 주거배제, 건강배제, 교육배제, 사회활동 배제로 살펴본다[표 3].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는 근로배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건강 배제와 경제적 배제는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배제를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은 사회적 배제 중에서 근로배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

기의 가장 보편적인 퇴직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표 3.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경제적 배제 (n=4040)	배 제	1833
	비배제	2207
근로 배제 (n=3018)	배 제	3180
	비배제	860
주거 배제 (n=4040)	배 제	720
	비배제	3320
건강 배제 (n=4040)	배 제	1771
	비배제	2269
교육 배제 (n=4039)	배 제	1361
	비배제	2678
사회활동 배제 (n=4040)	배 제	1384
	비배제	2656

2.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예측요인

노년기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개인적 특성, 물리적 특성, 인적자원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만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배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델은 유의 했으며, 설명력 69.5%였다[표 4]. 노인의 경제적 배제예측요인은 연령, 거주 지역과 가구원수, 손자녀 돌봄 여부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손자녀 돌봄 여부였다.

표 4. 노인의 경제적 배제 예측요인 (N= 3,427)

1=경제적 배제, 0=경제적 비배제				
	B	S.E	Wald	Exp(B)
상 수	-.504	.682	.547	.604
〈개인적 특성〉				
성별(남=1)	.041	.117	.126	1.042
연 령	.037***	.009	16.050	1.038
배우자유무(유배우자=1)	.232	.135	2.949	1.261
거주 지역(도시=1)	-.635***	.111	32.725	.530
〈물리적 특성〉				
가구유형(빈곤가구=1)	22.930	1153.064	.000	.000
가 구 원 수	-1.285***	.079	267.044	.277
〈인적 자원〉				
손자녀 돌봄(돌봄=1)	.430*	.207	4.299	1.537
chi-square	2522.757***			
Nagelkerke R ²	.695			

*p<.05, **p<.01, ***p<.001

다음으로 노인의 근로 배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델은 유의했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9.8%였다[표 5]. 노인의 근로 배제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종교,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과 거주가구유형, 거주형태, 가구원수로 나타났다.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인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거주 지역이었다.

표 5. 노인의 근로 배제 예측요인 (N= 3,427)

1=근로 배제, 0=근로 비배제				
	B	S.E	Wald	Exp(B)
상 수	-6.836***	.798	73.371	.001
〈개인적 특성〉				
성별(남=1)	-.785***	.118	44.491	.456
연 령	.114***	.011	115.314	1.121
종교(기독교=1)	.233*	.108	4.713	1.263
배우자유무(유배우자=1)	-.243*	.137	3.140	.785
거주 지역(도시=1)	1.469***	.110	177.694	4.343
〈물리적 특성〉				
가구유형(빈곤가구=1)	.715***	.127	31.551	2.044
거주형태(일반주택=1)	-1.302**	.149	76.418	.272
가 구 원 수	.221**	.048	21.067	1.248
〈인적 자원〉				
손 자녀 돌봄(돌봄=1)	.182	.227	.644	1.200
chi-square	655.058***			
Nagelkerke R ²	.298			

*p<.05, **p<.01, ***p<.001

노인의 주거 배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델은 유의했으며, 설명력은 10.2%였다[표 6]. 노인의 주거 배제 예측요인은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과 거주가구유형, 거주형태, 생존자녀수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일 경우,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손 자녀를 돌보는 경우, 생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주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거주 지역이었다.

표 6. 노인의 주거 배제 예측요인 (N= 3,427)

1=주거 배제, 0=주거 비배제				
	B	S.E	Wald	Exp(B)
상 수	-2.481***	.606	16.740	.084
〈개인적 특성〉				
성별(남=1)	-.025	.111	.049	.976
연 령	-.002	.008	.063	.998
종교(기독교=1)	-.094	.094	.998	.910
배우자유무(유배우자=1)	-.331**	.112	8.738	.718
거주 지역(도시=1)	1.600***	.143	124.605	4.951
〈물리적 특성〉				
가구유형(빈곤가구=1)	.493***	.101	23.971	1.637
거주형태(일반주택=1)	.373*	.100	14.046	1.452
〈인적 자원〉				
손자녀 돌봄(돌봄=1)	.172	.161	1.143	1.188
생존자녀수	-.088**	.032	7.773	.916
chi-square	218.125***			
Nagelkerke R ²	.102			

*p<.05, **p<.01, ***p<.001

노인의 교육 배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델은 유의했으며, 설명력은 32.3%였다[표 7]. 노인의 교육 배제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종교,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 거주가구유형, 생존자녀수였다.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은 경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일 경우, 생존자녀수가 많을 경우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가구유형이었다.

표 7. 노인의 교육 배제 예측요인 (N= 3,606)

1=교육 배제, 0=교육 비배제				
	B	S.E	Wald	Exp(B)
상 수	-5.761***	.513	125.969	.003
〈개인적 특성〉				
성별(남=1)	-1.463***	.101	208.695	.231
연 령	.087***	.007	160.406	1.091
종교(기독교=1)	-.544***	.083	43.034	.580
배우자유무(유배우자=1)	-.640***	.092	48.535	.527
거주 지역(도시=1)	-.933***	.088	112.006	.393
〈물리적 특성〉				
가구유형(빈곤가구=1)	.325***	.088	13.770	1.384
〈인적 자원〉				
생존자녀수	.105***	.025	18.455	1.111
chi-square	968.021***			
Nagelkerke R ²	.323			

*p<.05, **p<.01, ***p<.001

표 8. 노인의 건강 배제 예측요인 (N= 3,606)

1=건강 배제, 0=건강 비배제				
	B	S.E	Wald	Exp(B)
상 수	-2.767***	.436	40.343	.063
<개인적 특성>				
성별(남=1)	-.406***	.079	26.442	.666
연 령	.037***	.006	40.397	1.038
배우자유무(유배우자=1)	.035	.084	.178	1.036
거주 지역(도시=1)	-.024	.077	.094	.977
<물리적 특성>				
가구유형(빈곤가구=1)	.514***	.080	41.112	1.671
가 구 원 수	-.029	.026	1.239	.971
<인적 자원>				
생존자녀수	-.007	.021	.108	.993
chi-square	142.119***			
Nagelkerke R ²	.052			

*p<.05, **p<.01, ***p<.001

노인의 건강 배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델은 유의했으며 설명력은 5.2%였다[표 8]. 노인의 건강 배제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유형이 유의한 변수였다.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유형이 빈곤 가구일 경우 건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가구유형이었다.

표 9. 노인의 사회활동 배제 예측요인 (N= 3,606)

1=사회활동 배제, 0=사회활동 비배제				
	B	S.E	Wald	Exp(B)
상 수	-3.505***	.454	59.522	.030
<개인적 특성>				
성별(남=1)	-.119**	.084	2.006	.888
연 령	.048***	.006	65.100	1.050
종교(기독교=1)	-.759***	.073	107.398	.468
배우자유무(유배우자=1)	-.087	.087	.983	.917
<물리적 특성>				
가구유형(빈곤가구=1)	.442***	.079	31.547	1.556
거주형태(일반주택=1)	-.387***	.091	18.253	.679
<인적 자원>				
생존자녀수	.011	.022	.237	1.011
chi-square	267.511***			
Nagelkerke R ²	.098			

*p<.05, **p<.01, ***p<.001

노인의 사회활동 배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델은 유의했으며, 설명력은 9.8%였다[표 9]. 노인의 사회활동 배제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종교, 가구유형, 거주 주택형태가 유의한 변수였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

수록,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경우,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일 경우, 거주주택형태가 일반주택이 아닌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다. 사회활동 배제 예측요인 중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가구유형이었다.

V.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 중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4,040명의 노인 중에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이 45.4%, 근로배제 78.7%, 주거배제 17.8%, 건강배제 43.8%, 교육배제 33.7%, 사회활동 배제 34.3%로 근로배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신욱 외(2005)연령에 따른 배제차원의 정도에서 고령층의 배제가 경제배제와 근로배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같게 나타났으며, 배지연등(2006)의 연구결과 빈곤감으로 말한 경제적 배제 43.0%, 경제활동 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이 81.5%인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안나 외(2008)의 연구결과 최저생계비 기준 59.4%의 노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보다는 낮은 배제율로 나타났고, 중위소득 기준일 때 50%로 나타난 것보다는 낮은 경제적 배제 비율이었다. 즉 선행연구결과 [2][9][19]의 결과 모두 노년기는 사회적 배제 하위 요인 중에서 근로 배제를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근로 배제는 정년이 정해져 있는 조직사회에서 직업생활을 한 대부분의 노인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배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경제적 배제 예측요인은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

하지 않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 경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배제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는 손자녀 돌봄 여부였다. 먼저, 경제적 배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손자녀 돌봄 여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손자녀 돌보느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부터 가정보육 유아에게 지급되기 시작하는 보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가구원수가 적을 경우 경제적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김교성과 노혜진(2008)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배제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노인들이 가구원 즉, 자녀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더 많이 경제적 배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채용 및 일자리 관련 사업의 증대와 함께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세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의 근로 배제 예측요인은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는 거주지역이었다. 이는 김교성과 노혜진(2008)의 연구와 배미애(2007)의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사회적 배제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즉 도시 거주가 근로배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것은 노년기까지 농사를 짓는 농촌 노인과는 달리, 도시노인의 경우 은퇴를 한 경우 재취업이 어렵고, 노인 일자리의 부족 등 고령자 취업의 어려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 도시노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주거 배제 예측요인은 노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생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주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는 거주 지역이었다. 이는 김교성과 노혜진(2008)의 연구와 배미애(2007)의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사회적 배제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주거배제에서 거주지역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것은 농어촌에 비해 도시의 노인들이 더 많은 주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농촌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노인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배제를 당할 위험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특별 분양, 가격조정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교육 배제 예측요인은 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은 경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일 경우, 생존자녀수가 많을 경우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는 가구유형이었다. 이는 가구유형이 교육 배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것은 과거 빈곤 가정이 교육에의 접근이 어려웠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으로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많은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2][5][13][18][27]와 같은 결과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의 사상과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 해오며, 남성 위주의 교육을 시킨 사회적인 모습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여성노인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음 세대의 여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여성교육에 보다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노인의 건강 배제 예측요인은 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유형이 빈곤가구일 경우 건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는 가구유형이었다. 이는 빈곤

가구의 노인들이 건강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큼을 보여주는 결과로 빈곤 가구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의 폭이 더 증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김안나(2008)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건강배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같은 결과로써, 여성노인을 위한 예방접종이나 보건소 차원에서의 개별 진료, 민간의료병원 차원에서의 의료비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활동 배제 예측요인은 노인이 여성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경우, 거주 주택형태가 아파트인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고, 사회활동 배제예측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는 가구유형이었다. 즉 빈곤가구의 노인이 사회활동 배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빈곤가구 노인들의 생계나 건강이 사회활동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곤가구 노인에 대한 건강과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유형별로 살펴본 사회적 배제의 예측요인을 종합해 보면, 경제적 배제는 손자녀 돌보는 노인이, 근로배제와 주거배제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교육배제와 건강배제, 사회활동 배제는 빈곤가구 노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결과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지원이 보다 많이 필요하며, 교육, 건강, 사회활동에는 빈곤가구 노인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특성에 따른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논문은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기초적인 연구로 가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패널인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의 이용은 대규모의 노인

연구에 적합한 자료였으나, 사회적 배제의 조작적 정의에서는 2차 데이터 이용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노년기 사회적 배제를 측정을 위한 대규모 표본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를 배제와 비배제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정도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2차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따른 한계이며, 차후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과 함께 대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패널자료는 오랜 기간 동일한 가구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다른 특성의 변화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패턴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화연구패널은 2006년에 1차 조사와 2008년에 실시한 2차 조사 자료의 결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기간의 종단 조사 자료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볼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차후 패널조사가 계속 실시되면서 나오는 결과에 따른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동태적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넷째, 사회적 배제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다루지 않고 미시적인 맥락에서 배제를 다룬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적 정립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1] 강신욱,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pp.66,9-31, 2006.
- [2]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5.
- [3] 강현정, 김윤정, “사회적 배제 경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4, No1, pp.333-358, 2010.
- [4] 박효문,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 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가을, pp.27-49, 2002.

- [5] 김교성, 노혜진,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34, pp.133-162, 2008.
- [6] 김수영, 모선희, 원영희, 최희경, 노년 사회학, 학지사, 2009.
- [7] 김수정,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 연구, Vol.17, No.1, pp.93-133, 2007.
- [8]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Vol.32, pp.227-330, 2007.
- [9] 김안나, 노대명, 김미숙, 신호성, 홍인옥, 김태완, 강민희, 이소정, 원일, 윤필경, 유정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10] 김운정, 노년학, 금광출판사, 2008.
- [11] 김주현,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Vol.27, No.4, pp.739-754, 2007.
- [12] 김태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3] 남기철,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 Vol.15, No.2, pp.121-142, 2005.
- [14]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3, pp.253-277, 2004.
- [15] 박능후, 송미영,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31, pp.7-26, 2006.
- [16] 박석돈, 박순미, 이경희, 노인복지론, 양서원.
- [17] 박영미,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4, pp.11-41, 2008.
- [18] 배미애,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Vol.24, No.1, pp.151-191, 2007.
- [19] 배지연, 노병일, 광현근, 유현숙,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33, pp.7-28, 2006.
- [20] 백혜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21] 보건복지가족부, 전국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 [22] 석재은, 김태완,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23] 심창학, “사회적 배제와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 상황과 복지, Vol.19, pp.13-54, 2004.
- [24]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25] 여지영, 여성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6] 유경준, 김대일, 외환위기이후 소득분배 구조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분석, 한국개발원, 2002.
- [27] 유현숙, 광현근, “여성 한 부모 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34, pp.245-272, 2007.
- [28] 윤정향, 이병훈, “사회복지 배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Vol.48, No.1, pp.145-186, 2005.
- [29] 윤홍식,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 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pp.5-27, 2004.
- [30] 정경희,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31] 정경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Vol.2009, No.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6-14, 2009.
- [32] 정미숙,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이론-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Vol.7, No.1, pp.55-92, 2007.
- [33] 정윤태, 노인의 사회적 배제 규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강 및 경제 의존성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4] 조명희, “노년기 여가활동: 노년기 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5, No.1, pp.209-222, 2007.

[35] 조추용,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22, pp.7-34, 2003.

[36] 최현수, 류연규,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3, No.3, pp.143-160, 2003.

[37] 최희경,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형성분석”, 노인복지연구, Vol.27, pp.147-174, 2005.

[38] 통계청, 2007 고령자통계, 통계청, 2008.

[39]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D/B, 2009.

[40] 통계청, 2009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0.

[41] 홍현방,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Vol.22, No.3, pp.245-259, 2002.

[42]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 법문사, 1991.

[43]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 패널, 2011.

[44] Y. Berman and D. Phillips,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0, 2000.

[45] Euro Health Net, *Health, Poverty and social inclusion in Europe*, Euro Health Net, 2003.

[46] J. Figueiredo and Hann, *A Social Exclusion: An ILO perspectiv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 1998.

[47] Hooyman, R. Nancy and Asuman Kiyak, H, *Social Gerontology*, PERSON, 2008.

[48] L. Leisuring and S. Leibfried,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49] D. K. McLaughlin and L. Jensen,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Vol.40, No.4, pp.469-479, 2000.

[50] OECD, *The OECD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51] L. Richardson and L. J. Grand, Outsider and Insider Epertise, “The Response of Residents of Deprived Neighbourhoods to and Academic

Definition of Social Exclusio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36, No.5, pp.496-515, 2002.

[52] G. Room,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Press, 1995.

[53] Social Exclusion Units, *Preventing Social Exclusion Report by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1.

[54] R. Walker, The dynamic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p.102-128. G .Room(ed.,). Bristol; Policy Press. 1995.

저 자 소 개

강 현 정(Hyun-Jung Kang)

정회원



- 2005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박사)
- 2011년 ~ 현재 : 한서대학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 노인의 사회적 배제, 노인의 사회참여, 노후준비도 등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부양, 성공적 노화,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노인의 정신건강 등